

오키도마리 도로

이와미 은광과 유노쓰항, 오키도마리항을 연결하는 이 구불구불한 길은 산과 울창한 숲을 지나 일본해로 이어집니다. 모리 씨족이 은광의 지배권을 수중에 넣었던 16 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이 길은 만들어지자마자 이와미 은광으로 향하는 중요한 교통로로 활용되었습니다. 은광에서 채굴되고 제련된 은은 소박한 짐수레나 소에 실려서 항구로 운반되었고 항구로 모인 다양한 물자는 은광 주변 마을에 공급되었습니다.

유노쓰 오키도마리 도로는 원래 흙으로 된 산길이었지만, 에도 시대(1603~1867)에 그 일부가 사람들이 쉽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돌로 포장되었습니다. 이때 이용된 채석장은 지금도 도로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은이 이 길을 따라 해안으로 운반된 것은 16 세기 후반의 40 년 동안에 불과했지만, 19 세기 후반까지 이 길은 은광으로 향하는 물류의 주요 경로로 남아 있었습니다. 오늘날에도 오모리에서 유노쓰나 오키도마리까지 총 14km 의 도로를 걸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폭우가 내린 후에는 걷기 어려운 구간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.